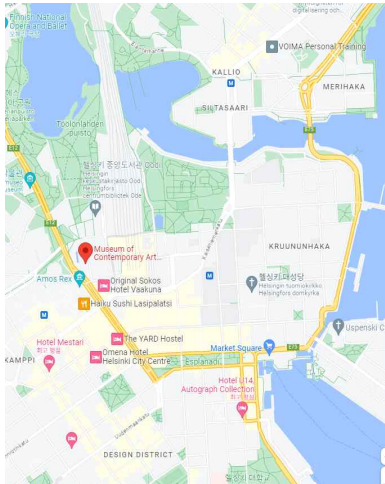




Kiasma Museum

Kiasma contemporary art museum

1. Information



Helsinki, Finland
Open in 1998

1. Information



Steven Holl

Steven Holl은 시애틀 출신의 건축가로 워싱턴대와 유럽에서 건축을 공부하면서 르 코르뷔지에의 영향을 크게 받은 건축가이다

“건축은 미술”이라는 사상을 고집하는 건축가로 수채화를 건축표현의 하나의 도구로 이용함으로써 낭만주의의 느낌을 주기도 한다. 또한 연속된 공간들을 안에서 각각의 면에 반사, 굴절되는 자연광과 그림자가 융합된 다공성을 중요시하였다.



<Simmons Hall> - M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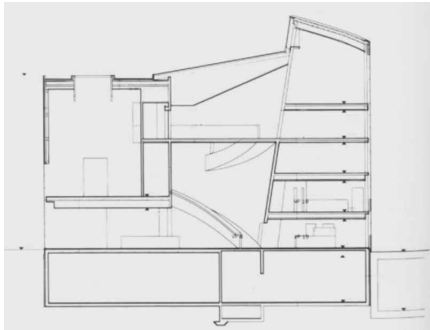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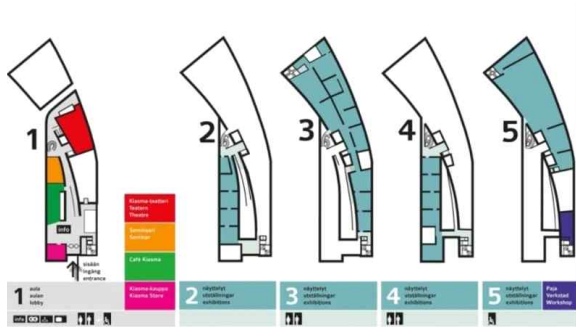
2. Reason Of Choice



예상할 수 없는 입면 / 역동적인 실내

이 건축물의 입면을 볼 때 어느정도 예상하는 반대부분의 입면이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있던 것에서 첫 번째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이후 램프와 곡선 외벽, 자연광이 합쳐져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실내 분위가 두 번째 매력이자 이 미술관의 가장 큰 강점으로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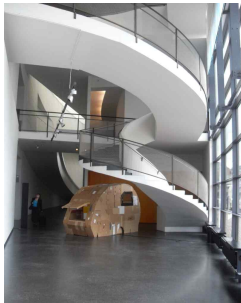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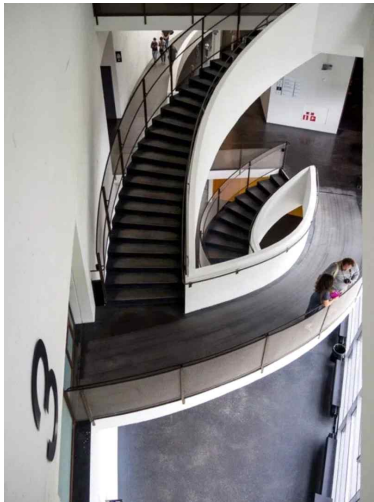
3. Plan



Kiasma 미술관의 1층은 극장, 카페, 스토어 등 편의시설과 행정시설이 위치해있고 2층부터 나머지 공간들은 스킵플로어로 연결되어있으며 전시공간으로 사용된다.

전체적인 형태는 서쪽에 박스 형태의 메스, 동쪽에 곡선 뿔 형태의 메스가 겹쳐있는 모습을 보이며 두 메스 사이는 천창으로 연결하여 1층까지 강한 채광을 확보하였다. 또한 층의 연결을 램프, 나선형 계단을 통해 진행하면서 외부에서 보았을 때는 글라스 월이 잘린 것 같은 느낌, 실내에서는 계곡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4. KeyW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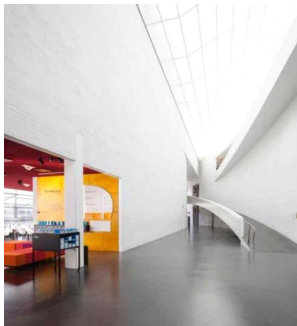


교차 (Crossing)

곡선 메스와 수직 메스의 교차로 이루어진 이 미술관은 실외에선 수공간과 건축물이 교차되며 인근에 위치한 톨로 호수와 상징적으로 연결된다. 실내에선 두 메스의 교차점에 복잡한 형태의 나선형 계단을 배치하여 실내에서 두 메스의 교차에 휩쓸리는듯 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미술관의 이름인 Kiasma도 유전학에서 염색체의 교차를 의미하는 Chiasma를 핀란드 방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4. KeyWord



빛 (Lighting)

르 코르뷔지에에게 많은 영향을 받은만큼 로비에선 순백의 벽에 강한 채광을 통해 계곡과 같은 신비스러운 공간을 연출해냈다.

반대로 전시 공간에서는 채광을 제한하면서 곡면벽을 활용한 은은한 간접광, 극적인 빛의 반전을 위한 천창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자연광을 실내로 들여 동굴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5. E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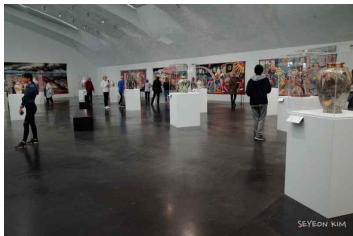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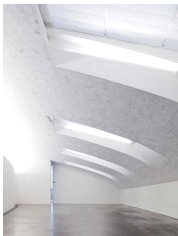


Steven Holl의 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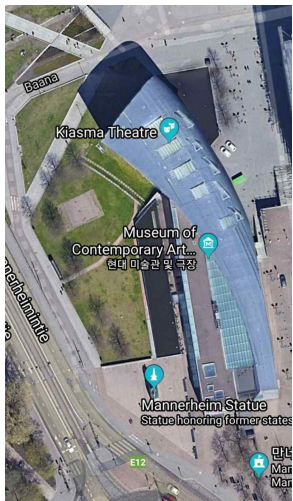
Steven Holl의 특징 중 가장 큰 것은 작품의 실제 내용보다 말이 앞서는 것이라고 한다.

Kiasma 미술관 또한 일부 공간에선 형태의 독특한 창의성이 돋보였지만 건축물에서 이야기하는 공간의 경험과 자연광이 매우 표피적이라는 평가가 여럿 있었다.

나 또한 조사 과정에서 전시공간 중 최상층을 볼 때 이러한 평가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다. 크게 뚫려있는 천창은 전시물과 함께 보았을 때 의미있게 활용되는지 미지수였고 뒤로 기울어진 외벽을 보완하기 위한 파티션이 기존의 메스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어색하게 받아들여졌다.



5. Evaluation



컨셉과 주변환경의 융화

Kiasma 미술관은 프로젝트의 이름부터 교차를 의미하는만큼 건축물의 메스 이외의 부분에서도 교차를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수공간이 서쪽에서 시작하여 미술관을 외부에서 관통하는 계단과 함께 동쪽으로 흘러감으로써 기본적으로 교차되는 형태는 물론이고 물이 흐르는 방향과 메스가 흐르는 방향까지 일치시켰다.

또한 헬싱키는 백야가 있는 북반구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천창을 포함한 천장 전체적으로 곡선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소한 디테일도 있고 미술관이 세워지기 전부터 존재했던 핀란드의 전쟁영웅 만네르하임 장군의 동상을 전시관에서도 보이게 하면서 이 동상이 가지는 국민적 의미를 지키고자 했다.



6. My Opin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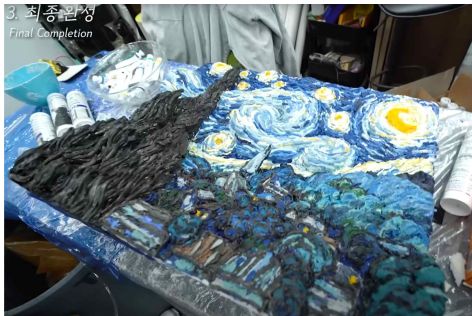
Kiasma 미술관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흥미들 이상으로 숨어있는 디테일을 찾아내는 재미가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 미술관의 핵심적인 건축적 요소들이 전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로비, 계곡 공간에 몰려있다는 점이 아쉽게 다가왔다.

특히 2~4층의 전시 공간에 전시된 미술품을 보고있으면 내가 알고있던 Kiasma 미술관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일반적인 미술관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외벽을 통해 메스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투영하는 전시공간의 경우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았고 나도 어느정도 동조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았다.

하지만 교차라는 컨셉을 형태적으로, 동선적으로 풀어낸 방식이나 글라스 월을 활용한 디자인은 여전히 매력적인 요소로 남았다.

또한 이 미술관의 컨셉과 함께 어우러져 전시되었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작품들이 떠오르는 등 좋은 아이디어들을 얻게 되었다.

6. My Opinion



각블 - 시각장애인이 볼 수 있는 그림 프로젝트

반 고흐 - 별이 빛나는 밤에

미술품을 감상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 중 하나인 시각장애인을 위해 촉감과 단순화된 색감을 활용한 작품이다

실리콘으로 제작한 입체 그림을 통해 촉감으로 그림을 파악, 만진 부분의 색을 강한 빛으로 싸주는 보조장치를 통해 최대한 시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게 작품의 분위기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큐레이터의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 완성되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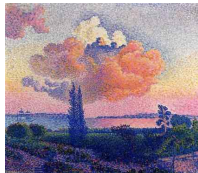
전시 방식에 따라 일반인들도 시각장애인들의 시선에서 체험해볼 수 있는 작품인 만큼 감상하는 방식, 제작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작품들을 전시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조르주 쇠라,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1886



빈센트 반 고흐, <까마귀 나는 밀밭>, 1890



앙리 에드몽 크로스, <The Pink Cloud>, 1896